

日本・中共의 石油거래 현황

1. 中共의 대외경제 정책

1948년 공산혁명후 中共은 자력갱생 정책을 내세웠다. 이에따라 대외무역에서 수입은 주로 공업건설과 공업생산의 수요를 확보하고 또 국내시장과 국민소비수요를 적당히 충족시킬 수 있게 행해졌고, 수출은 국가에 불가결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또 국내에서의 생산 발전을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행해져 왔다. 이것은 대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Autarkie 사상'으로 상호의존을 통한 규제 분업과는 대립되는 기본 이념이다. 자력갱생 정책하에서 무역은 수출입 균형이 중시되고 수입규모는 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있어서 수동적·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

자립갱생 정책에 근거해 대외무역 활동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1950년대의 연간 수출입 규모는 거의 20억-30억 달러대로 침체되었고, 피크시에도 (1959년)43.8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1960년 상반기에는 20-30억달러에 머물렀고, 하반기에 겨우 40억달러대로 확대되었다.

그 사이 中共경제는 1958-60년대에 「대약진 운동」이 전개되었는데 현실의 제조건을 무시한 중공업 우선정책을 강행했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국민경제의 균형파괴와 경제질서의 혼란, 자원 낭비와 국력소모를 초래하게 되었다.

1959년부터는 3년 연속된 농업 대재해로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1960년에는 中蘇경제 단교 사태에 직면해 경제조정이 급선무가 되어 조정정책이 1961년부터 65년

까지 계속되었다. 조정기가 끝난 1966년부터는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어 다시 경제혼란에 빠져 정체화가 부득이해졌다.

그런데 1970년대에 들어서 中共의 대외경제 정책의 기조는 커다란 변화를 이루게 된다. 1971년부터 72년에 걸쳐 역사적인 美國과 中共의 화해무드, 中共의 UN가입, 日本과 中共의 국교회복 등을 통해 中共의 국제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을 배경으로 대외무역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외무역 확대는 1959년 발견된 大慶유전의 개발·생산이 궤도에 오름에 따라 石油수출의 개시가 기폭제가 되었다. 石油가 주요한 외화획득원이 되어 근대화 투자를 위한 생산재 수입의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1973년의 수출입 규모는 109.8억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 100억달러를 돌파했고, 74년 145.7억달러, 75년 147.5억달러로 증대되었다. 그러나 76년에는 134.4억달러로 떨어져 버렸다. 이것은 75년말부터 76년 상반기에 걸쳐 문화혁명파에 의한 외국의존 정책 비판인 소위 "洋奴 철학" 비판운동이 전개되어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6년 10월, 소위 4인방의 실각을 계기로, 그때까지 견지해 왔던 「외국원조, 차관, 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본원칙은 크게 수정되게 되었다. 자력갱생정책에 대신해서 경제 국제화를 촉진하는 대외개방의 새로운 노선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외국의 자본참가와 기술 이전을 통해 근대화 속도를 가속시키기 위한 中共의 경제전략상의 일대 전환이었다.

〈表-1〉 中共의 대외무역 추이

(單位: 億달러)

	輸 入		輸 出		輸 入	
	計	전년대비증감률(%)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1973	109.8	74.3	58.2	69.2	51.6	80.4
1974	145.7	32.7	69.5	19.4	76.2	47.7
1975	147.5	1.2	72.6	4.5	74.9	△ 1.7
1976	134.4	△ 8.9	68.6	△ 5.5	65.8	△ 8.7
1977	148.0	10.1	75.9	10.6	72.1	9.6
1978	206.4	39.5	97.5	28.5	108.9	51.0
1979	293.3	42.1	136.6	40.1	156.7	43.9
1980	378.2	28.9	182.7	33.7	195.5	24.8
1981	403.7	6.7	208.9	14.3	194.8	△ 0.3
1982	393.0	△ 2.7	218.2	4.5	174.8	△10.3
1983	407.3	3.6	222.0	1.7	185.3	6.0
1984	497.7	22.2	244.1	10.0	253.6	36.9
1985	592.1	19.0	258.0	5.7	334.1	31.7

〈資料〉 對外貿易省

1978년 12월에 문화혁명이 부정되고 「4개항의 현대화」 계획이 최우선 과제로 결정되었다. 그후 경제 체제개혁의 진전과 함께 대외 경제무역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맞았다.

1973년에 100억달러를 돌파한 中共의 대외무역은 78년에는 200억 달러로 배증, 80년대에는 400억달러로 늘어났다. 더욱이 84년 500억달러, 85년 592억달러로 계속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되었다.

중공의 무역 품목은 수출에서는 石油, 농산물 등 1차산품과 경공업·면직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입에서는 철강과 기계플랜트류가 약 6할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 상대국으로는 1985년의 실적으로 볼 때 홍콩(臺灣, 韓國과의 간접무역을 포함)을 비롯 日本, ASEAN, 美國, EC, 소련·東歐圈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日本이 제1위이고 홍콩, EC, 美國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2. 日本과 中共의 石油去來

日本과 中共의 국교재개후 日本과 中共의 무역은 石油

수입에 의해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석유수출에 따른 외화를 바탕으로 철강, 기계 플랜트를 수입하는 日本과 中共의 무역의 순환적 발전이 실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中共원유의 日本수출이 개시된 것은 日本과 中共의 국교회복 다음해인 1973년부터이다. 73년도의 中共原油 수입량은 164만kl였다. 74년도에는 약 3배인 514만kl로 증가했고, 75년도에는 946만kl로 급증했다. 76년도는 정치적 요인으로 전년수준을 하회했지만, 77-79년도는 800만kl수준으로 회복, 80년도에는 952만kl에 달했다. 81년도에는 1,000만kl를 돌파, 이후 순조롭게 증가해 86년도에는 1,340만kl로 지금까지 수입량중 최고를 기록했다. (표-1 참조)

日本과 中共의 石油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당초 다음과 같은 제반 정책이 강구되었다.

① 1977년까지는 日本, 中共 쌍방간에 1년단위의 수입 계약을 맺어왔는데, 1978년에 「日·中 장기무역 계약」의 체결로 연차별 수입량은 그 계약에 의해 3년 내지 5년

〈表-2〉 日本의 中共원유수입 추이

(單位: kl, %)

	輸 入 量
1973	1,639,493
1974	5,143,828
1975	9,456,381
(構成比, %)	(3.60)
1976	7,268,185
1977	8,029,767
1978	8,658,351
1979	8,584,521
1980	9,522,875
(構成比, %)	(3.82)
1981	10,913,643
1982	10,242,972
1983	11,283,567
1984	13,352,604
1985	12,745,811
(構成比, %)	(6.46)
1986	13,402,855
(構成比, %)	(7.1)

註: 구성비는 總原油수입량에 대한 비율(%)
〈資料〉 石油連盟 「石油資料月報」

동안 미리 결정되게 되었다.

② 大慶 원유는 성상이 비슷한 미나스 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었는데 1975년 1월의 가격인하에 따라 미나스 원유를 하회하는 가격수준으로 되었다. 동시에 계약가격을 달러 기준으로 바꿔, 달러결제와 유전스의 기간연장(60일)등 거래조건이 개선되었다.

③ 大連港은 1976년 7월의 신항구 완성전에는 2만DWT 내외의 선박만 입항할 수 있어 대형 탱커의 scale merit를 얻을 수 없었는데, 신항구의 완성에 의해 10만DWT까지의 선박의 입항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 운임도 국제시황에 맞게 인하되었다.

日本の 原油수입중 中共의 세어는 73-75년도에 3.6%, 81-85년도 6.4%, 86년도 7.1%로 착실하게 상승해 가고 있다. 한편 86년도의 原油수입의 국별순위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오만에 이어 中共은 5위를 차지하고 있다.

中共 석유에의 의존도가 높은 日本은 2차례의 석유위기에 타격을 받아 뜻밖에도 石油공급의 취약성이 나타났다. 이로인해 石油 공급원의 다원화가 꾀해졌는데, 中共은 중요한 신규 原油 공급국이 되었다. 1970-75년도의 日本의 中東원유 의존도는 78.24%였는데 76-80년에는

71.4%, 81-85년도는 68.8%로 그동안 약 10% 저하되었다. 이러한 脱中東 움직임에 크게 공헌한 것이 멕시코와 中共과 같은 非OPEC 산유국이었다.

中共원유의 용도는 정제용과 비정제용으로 대별되는데 그 비율은 대략 6대4이다. 비정제용은 공해대책에 메리트가 있는 저유황 大慶原油이어서 화력발전소에 쓰이고 있다.

中共에서는 原油뿐만 아니라 석유제품도 수입되고 있다. 1986년부터 日本에서는 나프타, 重油에 이어 휘발유, 등유, 경유의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이에따라 86년도 석유제품 수입량은 3,279만kl로 85년도의 1.35배에나 달했다. 이 가운데 中共에서의 수입량은 223만kl로 전체 6.8%의 세어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日本의 石油수입에서 아직 역사가 짧은 中共産 石油는 그 세어가 1할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미 非中東 지역에서의 주요한 수입시장의 지위를 확립해 공급원 다원화 정책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中共의 입장에서의 中共의 對日 석유수출은 日·中共 무역발전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경제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JETI)

□ 新 刊 □

석유의 이모 저모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지음 -